

중등교사의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박 종 철

이 동 귀†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 우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3개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중등교사 231명을 대상으로, 주요변인들(성인애착, 사회적 지지, 우울)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과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인 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이 각각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상급자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지지 하위차원들과 우울간, 그리고 의존애착과 상급자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성인애착 하위차원들과 사회적 지지 하위차원들간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둘째,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했으며, 의존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인 동료 지지 및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의존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인 상급자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 본 원고는 박종철(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석사논문(지도교수: 이동귀)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의 심사과정은 한국학교심리학회 편집위원회 부편집위원장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0377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위당관 410호) / Tel: 02-2123-2437, E-mail: lee82@yonsei.ac.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에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울 증세를 보이는 교사는 전체의 40%(유리한 우울증 28.0%, 확실한 우울증 11.9%)로 집계됐고, 우울증을 겪는 비율은 일반고 담임교사, 중학교 담임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7a). 최근 국내에서는 정규 수업 외 수업시간의 증가로 인한 교사들의 근무 시간의 증가, 수업 외 활동의 증가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학생 및 학부모 응대과정에서 감정노동의 문제가 새로운 유형의 교사 스트레스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7b). 즉, 교사의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겪는 교사 대부분이 학교 동료 교사나 상급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교 차원의 매뉴얼이나 조직적인 대응 방침이 없어 모든 문제를 교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황대훈, 2017, 2, 2.).

Beck(1967)은 우울을 스트레스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침울, 걱정, 상실감, 실패감과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정서로 정의하였다. 우울은 사람들의 약 20~25%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만큼 흔하지만(권석만, 2014),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의 부족을 호소한다(김은정, 권정혜, 1998). 즉, 우울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우울은 부정적인 생활사건, 취약성, 기질, 주변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교사집단에서도 부정적인 생활 사건, 스트레스 등이 우울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민희, 2006, 황현숙 등, 2012).

우울의 원인을 인지적 접근과 대인관계 접근을 통합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접근은 특히 대인관계 유형이 애착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은정, 권정혜, 1998). 즉, 인지-대인관계모델(Gotlib & Hammen, 1992; Safran, 1990)에서는 우울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지-대인관계적 변인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변인들이 불안정 애착의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이지연, 임성문, 2006). 이와 관련, 역기능적 태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배우자의 지지 부족 등이 불안정 애착과 우울 사이에서 작용하는 변인들로 알려져 있다(Hammen et al., 1995; Simpson, Rholes, Campbell, Tran, & Wilson, 2003). 또한 Hanskin, Kassel과 Abela(2005)는 자아존중감, 역기능적 태도, 대인관계의 부정적 사건을 애착과 우울 사이에서 작용하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며 특히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 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이 발생한다고 보았다(Bowlby, 1988; Gotlib & Hammen, 1992). 요컨대, 인지-대인관계모형은 우울을 유발하는 역기능적인 인지의 원인을 불안정 애착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Bowlby(1969)와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 애착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지속적이고도 강한 유대관계이며 타인에게 접근하려는 행동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애착은 생애 초기에 부모 혹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형성되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응과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애착은 평생 동안 대인관계 형성, 사회 적응 등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밑바탕이 된다

(Ainsworth, 1989; Bowlby, 1969). 즉, 주 양육자와 처음 맺는 관계의 질은 심리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영향을 끼친다(장휘숙, 1997; 장휘숙, 2004).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안정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내적 표상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만들고 개인의 안정감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 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하여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불안정과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Murphy & Bates, 1997). 성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적 작동 모델은 부분적으로는 인생 초기에 형성된 작동 모델에 기초하나, 그 후에 중요한 관계에서의 경험이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어(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4; Hazan & Shaver, 1987) 성인기의 심리적 요인 또한 성인기 애착과 연관된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특히, 교사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료 교사, 관리자 등과 같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교사의 인간관계 및 성인애착은 학교 교육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교사의 애착 유형과 수준은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신뢰, 정서적 안정, 갈등 해결 등을 교육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의 성인애착 수준에 따라 학생을 포함하여 교사가 관여하는 대인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강미경, 1999; 정윤정, 2003).

Hazan과 Shaver(1987)는 자신(oneself)과 사회적 유대관계(social relationships)인 2개의 성인지표에 근거하여, 애착유형과 아동기, 성인기 관

계의 다양한 측면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인에서도 세 가지 애착유형이 출현하는 정도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아울러 각 개인의 초기 가족관계의 지각, 정신모델에서의 차이에 따라 애착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Hazan과 Shaver(1987)의 차원(dimension)적 측정에 근거하여 Collins와 Read(1990)는 성인기 애착유형차원을 측정하는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이하 RAAS)를 개발하였다. 성인기 애착차원의 세 가지 하위요인은 대인관계에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친밀, close), 필요시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존, depend),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불안, anxiety)이다.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성인애착을 차원으로 구분하여 성인애착의 유형들을 연속적인 차원에서 개념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애착을 유형이라는 범주로 볼 것이 아니라 애착의 개념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차원으로 나누었을 때, 보다 더 성인애착의 자료 값들과 일치한다는 연구(Fraley & Waller, 1998)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애착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성인애착 질문지에 따른 성인애착차원과 우울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친밀애착에 속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는데 그들의 이성관계에서 보다 높은 만족도와 적응도를 보이며(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4)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조망을 갖고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보다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사회생활에서 보다 확

신에 차 있다(Collins & Read, 1990).

의존애착의 사람들은 남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로(Collins & Read, 1990), 의존애착은 다른 매개변인을 통하지 않고 우울에 직접 관여한다(김은정, 권정혜, 1998; Hammen et al., 1996).

불안/양가적 애착의 사람은 친밀감에 대한 강한 바람을 표현하나(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대인관계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며(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4; Collins & Read, 1990), 이성관계에 대해 보다 강한 감정과 정서적 기복을 보고하고(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강한 정서적 표현을 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또한 불안/양가적 애착의 사람들은 사회 상황에서 자기확신과 자기주장성이 부족하며(Collins & Read, 1990), 자기가치감이 빈약하고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이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일관적이지 않은 조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높은 수준의 사교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해 낙관적 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Bartholomew & Horowitz, 1991), 안정적 애착의 사람들에 비해 타인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Hazan & Shaver, 1987). 즉, 인간본성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조망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이해하기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각한다(Collins & Read, 1990).

다른 내적 작동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성인들은 대인관계 경험(Carnelly, Jaffe, & Pietromonaco, 1994), 정서적 경험(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an & Shaver, 1987), 그들 자신과 타인(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에 대한 회고적이고 총체적인 지

각에서 차이를 보인다. 애착의 작동 모델은 온정성, 사교성과 같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적 특징들과 깊은 관련이 있어, 광범위한 맥락과 관계 전반에 걸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Pietromonaco & Barrett, 1997). 성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적 작동 모델은 부분적으로는 인생 초기에 형성된 작동 모델에 기초하나, 그 후의 중요한 관계에서의 경험이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다(Carnelly et al., 1994; Hazan & Shaver, 1987).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성인기 정신병리와 성격특질 또한 성인기 애착과 강하게 연관된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Bowlby(1973)는 자신과 주양육자에 대하여 부정적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 사람들은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고 하였다. 즉, 초기에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자기와 타인의 부정적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되어 이것이 개인 고유의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해 지속되어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정화숙, 장문선, 2007).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 발생에 더욱 취약하다(Murphy & Bates, 1997).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적응적이고 큰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는(장휘숙, 1997) 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증상이 안정된 애착의 사람들보다 현격하게 높다(김은정, 권정혜, 1998). 불안정한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은 우울증 및 정서적인 불편감과 관련이 있으며(Kobak & Hazan, 1991),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Hammen et al., 1995; Milkulincer, Florian, & Weller, 1993) 또한 우울한 사람들은 애착관계 형성에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회피하는(avoidant-fearful) 성향을 보이

며(Carnelley et al., 1994), 불안한 감정을 보였다(Roberts, Gotlib, & Kassel, 1996). 또한 성격장애 외래환자, 만성적인 우울증 환자 및 불안장애 외래환자들은 애착관계 대상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도가 높았다(West, Rose, & Sheldon, 1993). 실제로 RAAS의 세 가지 하위 요인과 우울의 상관을 연구한 결과에서 친밀애착과 의존애착은 우울과 부적 상관, 불안애착 요인은 우울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김은정, 권정혜, 1998; 이지연, 임성문, 2006; Hammen et al., 1995). 이처럼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해 내적 표상을 긍정적으로 형성한 안정 애착의 사람들과 자기 및 타인에 대하여 내적 표상을 부정적으로 형성한 불안정 애착의 사람들 간에는 정신건강과 심리적 요인들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인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장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애착과 우울사이의 단순 상관관계를 넘어 두 변인 사이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변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지연, 임성문, 2006; 제주현, 김영근, 2018).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였다. Mikulincer, Shaver와 Pereg (2003)의 선행연구에서 애착회피를 형성한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좌절감을 피하기 위해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애착불안을 형성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 대상과 밀착하여 안정감을 느끼려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불안을 과장

하게 된다. 즉, 개인은 애착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urner(1981)는 자신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한 사람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한 사람보다 우울 점수가 낮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나 결여는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서서히 잠식하여 우울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사회적 지지의 충족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생활사건을 차단시켜 어려운 생활사건이 닥치더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유발한다고 하였다(권석만, 2013).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사랑,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인 사회적 지지에는(Cohen & Hoberman, 1983),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나 이웃 등 한 개인 주변의 모든 지지가 포함된다. 사회적 지지 중 상사의 지지는 구성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제공, 경력개발 촉진,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준다(Babin & Boles, 1996). 또한 동료의 지지는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직무 스트레스 및 이직 의도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Schaubroeck, Cotton, & Jennings, 1989).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행복, 삶의 질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Cohen & Syme, 1985; House & Kahn, 1985), 특히 직장을 다니는 가족 구성원은 일과 가정 모두에 열정을 쏟아야하므로 이러한 가족의 지지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지지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업무의 능률을 높여주고 만족

을 유발하며 결국 일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한 개인의 인식 및 지각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인 상급자, 동료, 가족으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 모든 자원(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을 사회적 지지로 개념화하여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사회적 지지는 생활 사건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심리·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심웅철, 전우병, 양돈규, 2008), 위기 및 변화에 대한 대처와 적응을 촉진하기도 한다(김하경, 2016; 정지은, 2013). 사회적 지지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정도, 기능과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House, 1981).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는 직장에서 성취감과 유능감을 많이 지각하게 하고, 슈퍼바이저의 지지는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Brown & O'Brien, 1998). 김창기와 이화정(2011)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상급자 및 동료의 지지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Gore(1978)는 사회적 지지가 일상 속에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대한 심리적인 결과를 제거해 버리거나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Inger 등(2007)은 사회적 지지가 직장인의 우울을 감소시켰다고 하였고, King 등(1995)도 가정의 정서적 지원이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불충분한 것과 여성의 우울증 발생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Monroe 등, 1986).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우울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는다고 보고하면서(Brown, Brady, Lent, Wolfert, & Hall, 1987; Hefner & Eisenberg, 2009),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생활사건이나 일상긴장, 스트레스 등과 관계없이 정신건강에 이로운 독립적인 주요한 효과를 갖는다고 제안하고 있다(Thoits, 1985). 사회적 지지는 그 자체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이 우울을 덜 경험한다. 일군의 연구(신노라, 2000; 신노라, 안창일, 2004)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 불안을 경험함을 보고하고 있고, 이영자(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전신현(2012)의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사건과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 효과를 보였다.

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유경자(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며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관계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지는 중등교사의 우울을 완화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애착과 우울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등교사 집단의 우울과 애착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특히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논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중등교사들이 우울로 인한 여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울의 인지이론을 토대로 하되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등교사의 우울의 원인이 애착과 관계가 있는 점, 그리고 성인애착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우울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론에 바탕을 두고, 특히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우울을 완충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채택하여 이 변인이 성인애착과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의 주체를 성인애착 차원별로 상급자, 동료, 가족으로 나누어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등교사의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상급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가 유의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사의 성인애착(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상급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등교사의 성인애착(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 우울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상급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가 조절하는가?(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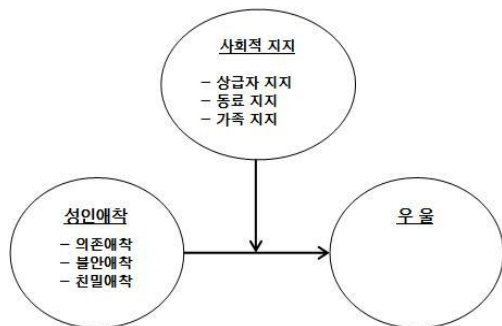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도 소재(서울, 고양, 광명) 3개 중·고등학교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부하였다. 배부된 총 300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자료(총 3개의 척도 중 최소한 1개 척도 전체에서 무응답) 68부와 무성의하게 대답한 자료 1부를 제외한 총 23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도구

성인애착

중등교사의 애착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성인애착 질문지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0	13.0%
	여자	201	87.0%
교직 경험	5년 미만	23	1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9	29.9%
	10년 이상 ~ 15년 미만	68	29.4%
	15년 이상 ~ 20년 미만	41	17.7%
	20년 이상	30	13.0%
담당 업무	담임교사	130	56.3%
	비담임교사	70	30.3%
	부장교사	27	11.7%
	기타	4	1.7%
전 체		231	100.0%

(RAAS: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를 한국인에 맞게 이재원(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밀애착은 자신이 상대방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을 의미한다. 불안애착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 애착을 의미한다. 의존애착은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 주는 것에 대한 불편감,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과 반대된다. 세 하위척도는 각각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된다(각 하위 차원별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 이재원(2006)의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하위요인별로 의존애착 .71, 불안애착 .70, 친밀애착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의존애착 .71, 불안애착 .76, 친밀애착 .67로 나타났다.

우울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ock 와 Erbaugh(1961)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K-BD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4개의 문장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0점부터 63점까지 분포한다. Beck(1967)의 분류에 따르면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점~15점은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은 중

한 우울 상태, 24점~63점을 심한 우울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Bumberry와 동료들(1978)은 정상인의 BDI점수를 3.94, 경우울증의 점수를 14.10, 중우울증의 점수를 22.18점으로 제안하였다. 한국판 연구에서는 우울집단 선별을 위해 절단점(cut-off score)을 16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BDI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Caplan 등(1980)이 개발한 질문지를 박성호(2001)가 한국인에 맞게 번안한 사회적 지지 척도(상급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를 사용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급자 지지 6문항, 동료 지지 6문항, 가족 지지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이므로 교장, 교감의 지지를 학교 관리자인 상급자 지지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서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에서 자신의 경우를 잘 나타내는 정도를 1~5중 하나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성호(200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전체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고, 하위요인별로는 슈퍼바이저의 지지 .89, 동료 지지 .92, 가족 지지 .8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상급자 지지 .93, 동료 지지 .94, 가족 지지 .93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들(성인애착, 사회적 지지, 우울)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인 성인애착(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상급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Aiken과 West(1991)가 제안했던 방식으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및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3개의 성인애착(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과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상급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 각각의 점수를 각 변인의 평균으로부터 빼는($X_i - \bar{X}$) 비표준화 방식으로 평균 중심화 하였다. 또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pm 1SD$ 에 해당하는 우울 점수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일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Hayes(2014)의 SPSS 매크로인 PROCESS 2.11(Model 1)을 이용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절변인에 따른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분석에 사용한 주요변인인 성인애착(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과 사회적 지지(상급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 우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존애착과 상급자 지지 간 상관, 우울과 상급자 지지 간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간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이때, 우울은 성인애착의 하위요인 중 의존애착, 불안애착과는 정적 상관이, 나머지 하위요인인 친밀애착,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울의 평균 점수를 통해 본 연구에서 표집한 집단의 우울 수준을 확인했을 때, 본 연구에서의 우울점수의 평균은 4.99점이었으며, 한국판 연구(이영호, 송종용, 1991)에서 나타난 우울집단 선별 절단점인 16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16점 미만은 215명, 16점 이상은 16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중등교사의 6.9%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등교사의 성인애착(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상급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의 수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지, 즉 3가지 사회적 지지가 각각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했던 조절효과 확인 절차를

표 2. 연구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 = 231)

변인	1	2	3	4	5	6	7
성인 애착	1. 의존애착	-					
	2. 불안애착	.48***	-				
	3. 친밀애착	-.53***	-.30***	-			
사회적 지지	4. 상급자 지지	-.13	-.16*	.18**	-		
	5. 동료 지지	-.37***	-.37***	.34***	.29***	-	
	6. 가족 지지	-.34***	-.40***	.23***	.17*	.31***	-
7. 우울		.32***	.31***	-.30***	-.11	-.37***	-.34***
평균		14.70	12.40	20.11	16.35	23.57	17.06
표준편차		3.17	3.19	2.94	5.31	4.04	3.13

* $p < .05$, ** $p < .01$, *** $p < .001$.

통해 2단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살펴 보았다. 즉,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우울을 종속 변인으로 한 후,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3개 유형의 성인애착 중 1개와 조절변인인 3개 사회적 지지 중 1개를 반복해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곱항인 상호작용 항(예, 의존애착×상급자 지지)을 투입하였다.¹⁾ 따라서 총 9번(3개의 성인애착 유형×3개 사회적지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2단계의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처럼 조절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효과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Hayes의 SPSS 매크로인 PROCESS 2.13(Model 1)을 이용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절변인의 수준(+1 표준편차, -1 표준편차) 각각에 따라 독

립변인(예측변인)이 종속변인(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상급자 지지의 조절효과. 중등교사의 성인 애착(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 각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중 상급자 지지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상급자 지지의 조절효과는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불안애착과 상급자 지지는 우울 분산의 10.1%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F_{(2, 228)} = 12.796, p < .001$), 이후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이 항이 우울 분산의 2.6%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3, 227)} = 10.954, p < .001$). 이때 불안애착과 상급자 지지의 상호작용 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60, t = -2.576, p < .05$). 반면, 의존애착의 경우에는 우울에 대한 의존애착의 주효과($\beta = .315, t = 5.005, p <$

1)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표들의 상수항 계수 및 2단계의 개별 독립변인들의 영향과 같은 추가 분석 결과들은 표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생략함.

표 3.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급자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1	의존애착(A)	.600	.120	.315	5.005***	14.060***	.110	.110***
	상급자 지지(B)	-.079	.071	-.070	-1.110			
2	A×B	-.029	.017	-.106	-1.691	10.403***	.121	.011
1	불안애착(A)	.571	.120	.302	4.803***	12.796***	.101	.101***
	상급자 지지(B)	-.070	.072	-.062	-1.053			
2	A×B	-.049	.019	-.160	-2.576*	10.954***	.126	.026*
1	친밀애착(A)	-.597	.132	-.291	-4.620***	11.799***	.094	.094***
	상급자 지지(B)	-.066	.073	.058	-.993			
2	A×B	.034	.020	.111	1.761	8.973***	.106	.012

* $p < .05$, ** $p < .01$, *** $p < .001$.

.001)만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친밀애착의 경우에는 우울에 대한 친밀애착의 주효과($\beta = -.291$, $t = -4.620$, $p < .001$)만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상급자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던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급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인(예측변인)인 불안애착과 조절변인인 상급자 지지의 평균을 중심으로 ± 1 표준

편차 지점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조절효과를 도식화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조절변인인 상급자 지지의 수준에 따라 불안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상급자 지지의 수준이 ‘낮을(-1 표준편차)’ 때 불안애착 수준이 증가하면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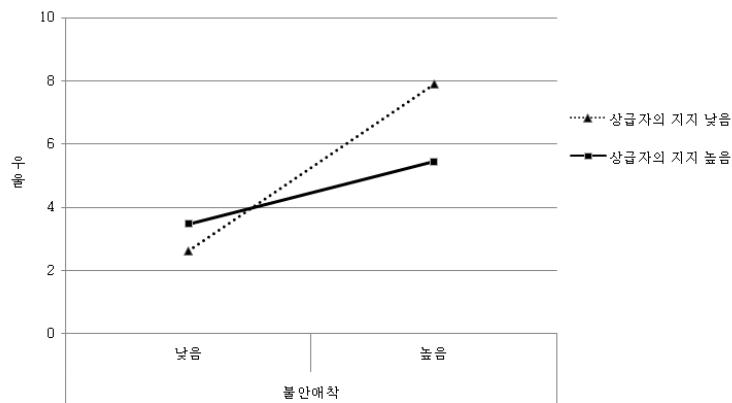


그림 2.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급자 지지의 조절효과

= .831, $t = 5.332$, $p < .001$). 반면, 상급자 지지의 수준이 ‘높을(+1 표준편차)’ 때도 불안애착 수준이 증가할수록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B = .310$, $t = 1.988$, $p < .05$), 불안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약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불안애착 수준이 증가할수록 우울 점수가 증가하지만, 이때 상급자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불안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의존애착과 우울의 관계나 친밀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상급자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동료 지지의 조절효과. 중등교사의 성인애착(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 각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중 동료 지지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 보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동료 지지의 조절효과는 의존애착과 우울의 관계,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먼저 의존애착의 경우에, 의존애착과 동료 지지는 우울 분산의 17.5%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F_{(2, 228)} = 24.166$, $p < .001$), 이후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이 우울 분산의 2.8%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3, 227)} = 19.214$, $p < .01$). 이때 의존애착과 동료 지지의 상호작용 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78$, $t = -2.803$, $p < .01$).

다음으로 불안애착의 경우에, 불안애착과 동료 지지는 우울 분산의 16.9%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F_{(2, 228)} = 23.226$, $p < .001$), 이후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이 우울 분산의 1.9%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3, 227)} = 17.553$, $p < .01$). 이때 불안애착과 동료 지지의 상호작용 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47$, $t = -2.308$, $p < .05$).

반면, 친밀애착의 경우에는 우울에 대한 친밀애착의 주효과($\beta = -.200$, $t = -3.104$, $p < .01$)와 동료 지지의 주효과($\beta = -.296$, $t =$

표 4.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동료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1	의존애착(A)	.419	.123	.220	3.406***	24.166***	.175	.175***
	동료 지지(B)	-.424	.097	-.284	-4.396***			
2	A × B	-.075	.027	-.178	-2.803**	19.214***	.203	.028**
1	불안애착(A)	.388	.123	.205	3.158**	23.226***	.169	.169***
	동료 지지(B)	-.431	.097	-.289	-4.447***			
2	A × B	-.051	.022	-.147	-2.308*	17.553***	.188	.019*
1	친밀애착(A)	-.410	.132	-.200	-3.104**	23.030***	.168	.168***
	동료 지지(B)	-.442	.096	-.296	-4.609***			
2	A × B	.049	.029	.108	1.676	16.411***	.178	.010

* $p < .05$, ** $p < .01$, *** $p < .001$.

-4.609, $p < .001$)만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동료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던 의존애착과 우울의 관계,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동료 지지의 조절효과의 형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3과 그림 4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으며, 동료 지지의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의존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동료 지지의 수준이 ‘낮을(-1 표준편차)’ 때 의존애착 수준이 증가하면 우울 점수가 유

의하게 증가한 반면($B = .788$, $t = 4.404$, $p < .001$), 동료 지지의 수준이 ‘높을(+1 표준편차)’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불안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동료 지지의 수준이 ‘낮을(-1 표준편차)’ 때 불안애착 수준이 증가하면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B = .594$, $t = 3.935$, $p < .001$), 동료 지지의 수준이 ‘높을(+1 표준편차)’ 때에는 불안애착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하면, 의존애착이나 불안애착이 증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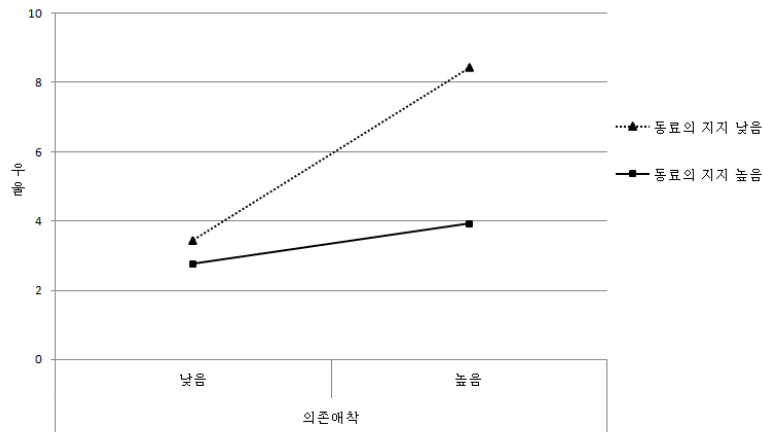


그림 3. 의존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동료 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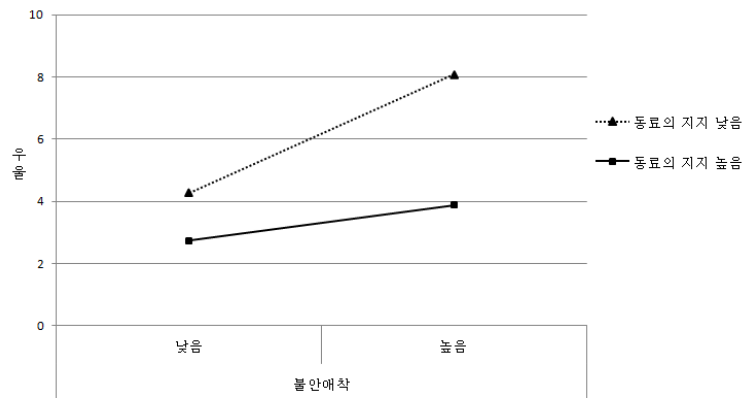


그림 4.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동료 지지의 조절효과

수록 우울 점수가 증가하지만, 이때 동료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그 영향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친밀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동료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 중등교사의 성인애착(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 각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 보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는 의존애착과 우울,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의존애착의 경우에 의존애착과 가족 지지는 우울 분산의 16.5%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F_{(2, 228)} = 22.601, p < .001$), 이후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은 우울 분산의 1.8%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3, 227)} = 17.050, p < .05$). 이때 의존애착과 가족 지지의 상호작용 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53, t = -2.803, p$

$< .05$).

다음으로 불안애착의 경우에 불안애착과 가족 지지는 우울 분산의 15.3%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F_{(2, 228)} = 20.630, p < .001$), 이후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상호작용 항은 우울 분산의 1.5%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3, 227)} = 15.300, p < .001$). 이때 불안애착과 가족 지지의 상호작용 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30, t = -2.021, p < .05$).

반면, 친밀애착의 경우에는 우울에 대한 친밀애착의 주효과($\beta = -.234, t = -3.765, p < .001$)와 가족 지지의 주효과($\beta = -.288, t = -4.635, p < .001$)만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던 의존애착과 우울의 관계,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의 형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5와 그림 6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가족 지지의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1	의존애착(A)	.445	.123	.234	3.406***	22.601***	.165	.165***
	가족 지지(B)	-.504	.124	-.262	-4.396***			
2	A×B	-.072	.032	-.153	-2.803*	17.050***	.184	.018*
1	불안애착(A)	.392	.126	.207	3.114**	20.630***	.153	.153***
	가족 지지(B)	-.498	.128	-.259	-3.884***			
2	A×B	-.060	.030	-.130	-2.021*	15.300***	.168	.015*
1	친밀애착(A)	-.480	.127	-.234	-3.765***	23.030***	.169	.169***
	가족 지지(B)	-.554	.120	-.288	-4.635***			
2	A×B	.055	.035	.099	1.589	16.411***	.178	.00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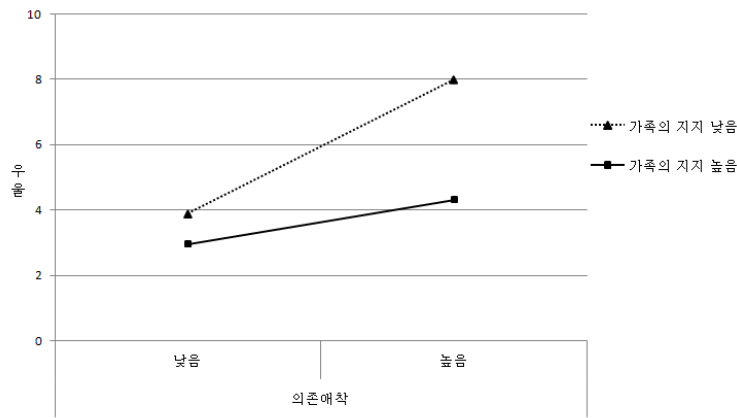


그림 5. 의존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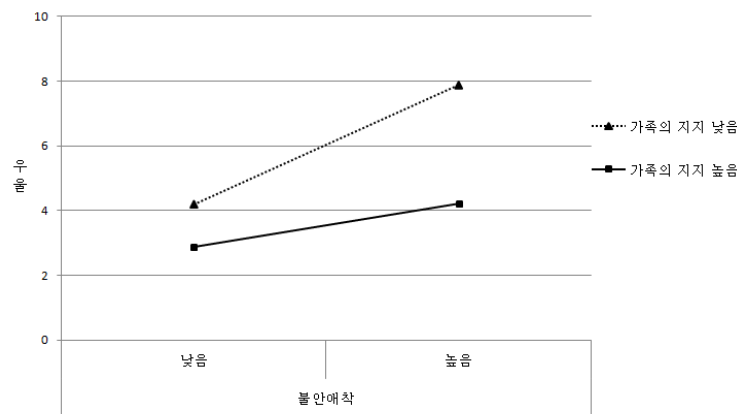


그림 6.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

우선 의존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 지지의 수준이 ‘낮음(-1 표준편차)’ 때 의존애착 수준이 증가하면 우울 점수가 증가하였지만($B = .721, t = 4.716, p < .001$), 가족 지지의 수준이 ‘높음(+1 표준편차)’ 때에는 의존애착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불안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족 지지의 수준이 ‘낮음(-1 표준편차)’ 때 불안애착 수준이 증가하면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지만($B = .633, t = 4.252, p < .001$), 가족 지지의 수준이 ‘높음(+1 표준편차)’ 때에는 불안애착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종합하면, 의존애착이나 불안애착이 증가할수록 우울 점수가 증가하지만, 이때 가족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그 영향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친밀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 우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중등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상급자, 동료, 가족의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관분석으로 알아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존애착, 불안애착, 친밀애착의 성인애착 차원 변인들과 우울 변인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이때 의존애착과 불안애착 변인들은 우울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친밀애착 변인과 우울변인과의 상관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김은정, 권정혜, 1998; 장휘숙, 1997)과 일치하는 결과로, 안정애착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내적표상을 형성하는 것과 불안정 애착의 사람들이 부정적 내적표상을 형성하는 것 사이에 정신건강과 심리적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우울변인과 사회적 지지의 상급자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때 동료 지지와 가족 지지 변인들은 우울변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심용철, 전우병, 양돈규, 2008; 정지은, 2013; Cohen, Underwood, & Gottlieb, 2000; Smith, Smoll, & Ptacek, 1990)과 일관적인 결과이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이 조직 내에 소속되어 있다고 지각하여 우울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주장과 일관적인 결과이다.

셋째, 의존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상급자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간 상관관계가 유의하

게 확인되었고 동료 지지와 가족 지지 변인들은 의존애착 변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불안애착은 사회적 지지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확인되었고 부적 상관을 보였다, 친밀애착은 사회적 지지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확인되었고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고은정, 1996; Lanier, 1996, Mikulincer et al., 1993; Nemeroff, 1999; Vaux & Harrison, 1985)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애착과 타인을 지지하고 돌보는 행위인 사회적 지지는 독립적인 행동체계이지만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제안한 Bowlby(1982)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불안과 의존애착 유형일수록 사회적 지지 관계망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사회적 지지를 부정하여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중등교사가 지각한 상급자, 동료, 가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각각 조절역할을 하는지 확인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불안애착과 상급자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지니고 있어 타인에 대해 불안과 친밀감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타인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과 타인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불안애착은 다른 애착보다 상급자 지지와 상호작용 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상급자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Inger et al., 2007; King et al., 1995; Monroe et al., 1986)와 일관적인 결과이다. 이는 학교 조직에

서 영향력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상급자 지지가 부적절하고 불충분할 때 우울의 발생이 높다는 것과 상급자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의존애착과 동료 지지, 불안애착과 동료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애착인 의존애착과 불안애착이 동료 지지에 유의미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동료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한다는 선행 연구들(Inger et al., 2007; King et al., 1995; Monroe et al., 198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인 동료 지지가 부적절하고 불충분할 때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동료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의존애착과 가족 지지, 불안애착과 가족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애착인 의존애착과 불안애착이 가족 지지에 유의미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가족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한다는 선행 연구들(Inger et al., 2007; King et al., 1995; Monroe et al., 1986)과 일관적인 결과이다. 이는 가족 지지가 부적절하고 불충분할 때 우울의 발생이 높다는 것과 가족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소들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이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우울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불안애착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상급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형성을 힘들어 하는 불안애착을 지닌 사람들에게 가족 지지, 동료 지지는 학교에서 성취감과 유능감을 지각하게 하고 상급자 지지는 학교 내에서 소진을 완화함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조절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친밀애착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정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활 사건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불안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위기와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내재되어 있어 우울에 대하여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우울관련 연구에서는 특정 직업군보다 일반 성인에 관심을 둔 연구가 많았지만, 최근 학교의 환경 속에서 중등교사의 우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반해 본 연구는 우울의 현상이 중등교사의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중등교사의 우울을 중심으로 성인애착과 본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중등교사의 성인애착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에 따른 차이 및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3개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이외의 다른 지역을 포함한 모든 중등교사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성교사의 비율이 87%로 남성교사에 비해 월등히 높아 모든 중등교사로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설

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르는 반응편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급자, 동료, 가족 지지만을 고려하였는데, 중등교사에게 상급자, 동료, 가족 외에 다양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을 보다 세분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변인 간 인과관계를 세밀히 확인하고 중등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사의 직장 생활을 추적 관찰하는 중단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등교사의 우울 관련 변인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교사의 우울, 자살충동의 현상이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등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진다면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임상적 우울증 집단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반영하지 못하여 본 연구를 임상 집단에 적용할 때 일반화의 제약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판명된 우울증 집단과 일반 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우울에 미치는 변인을 집단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중등교사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및 상급기관인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정책을 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울로 고생하는 중등교사들을 위해 상담서비스, 사회제도 등을 중등교사의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세분

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경 (1999). 여고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정 (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 학지사.
- 권석만 (2014). 이상심리학의 기초. 서울 : 학지사.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대인관계 취약성: 사회성 및 자율성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55-169.
- 김창기, 이화정 (2011).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보육교사 정신건강에 대한 보육서비스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66, 147-167.
- 김하경 (2016). 대학생의 성격5요인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호 (2001). 상담의 직무환경에서의 위험요소와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2000). 성인애착 유형과 대인 불안 수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 지지 수

- 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4), 949-968.
- 심웅철, 전우병, 양돈규 (2008). *심리학과 생활*. 서울 : 서현사.
- 유경자 (2005).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희 (2006). 교사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 (1995).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3, 195-242.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재원 (2006).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대인불안의 관계: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임성문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4), 969-984.
-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 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6(1), 80-97
- 장휘숙 (2004). 애착과 애착의 발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5(1), 16-27.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7a). 전교조,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실태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7. 2. 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7b). *교사직무스트레스·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
- 전신현 (2012).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와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3(4), 5-25.
- 정윤정(2003). 유아교사의 성인애착유형과 인간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은 (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화숙, 장문선 (2007). 편집성향집단의 애착, 우울 및 역기능적 대인관계. *상담학연구*, 8(1), 147-160.
- 제주현, 김영근 (2018). 성인애착유형과 우울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 18(2), 139-157
- 황대훈 (2017. 2. 2.). 교사 정신건강 ‘빨간불’. 10명중 1명 ‘치료 필요’. EBS 저녁뉴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632050/> N에서 검색.
- 황현숙, 이지연, 장진이 (2012). 중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9(2), 495-515.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bin, B. J., & Boles, J. S. (1996). The effects of perceived co-worker involvement and supervisor support on service provider role stress,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Retailing*, 72(1), 57-75.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561-571.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ner Medical Division.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 C., & O'Brien, K. M. (1998). Understanding stress and burnout in shelter worke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29, 383-385.
- Brown, S. D., Brady, T., Lent, R. W., Wolfert, & Hall, S. (1987).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college students: Three studies of th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unseling use of the social support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337-354.
- Bumberry, W., Oliver, J. M., & McClure, J. N. (1978). Validat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in a university population using psychiatric estimate as the criter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1), 150-155.
- Caplan, R. D., Cobb, S., French, J. R. P., Van Harrison, R., & Pinneau, S. P. (1980). *Job demand and worker health*.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27-140.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3-22).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 Cohen, W., Underwod, L. G., & Gotlieb, B. G.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relationships* (pp. 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 Gore S. (1978). The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57-165.
-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Oxford, UK: Wiley.
- Hammen, C. I., Burger, D., Daley, S. E., Davila, J., Paley, B., & Rudolph, K. D.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36-443.
- Hanskin, B. L., Kassel, J. D., & Abela, J. R. (2005). Adult attachment dimensions and specificity of emotional distress symptoms: Prospective investigations of cognitive risk and interpersonal stress generation as mediating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 136-151.
- Hayes, A., F. (2014).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Guilford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fner, J., & Eisenberg, D. (2009).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 491-499.
- House, J. S. (1981). *Occupation stress and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factory worker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House, J. S., & Kahn, R. L.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Inger P., Jeanne G. M., Ron G., Margreetten H., Aartjan T. F. B., & Brenda W. J. H. P. (2007). The contribut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support to the onset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among male and female employees. *Social Science & Medicine*, 64, 401-410.
- King, L. A., Mattimore, L. K., King, D. W., & Adams, G. A. (1995).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A new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 235-258.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Lanier, J. G. (1996). *Attachment styl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the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92-1107.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817-826.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Monroe, S. M., Bronmet E. J., Connell M. M., & Steiner S. C.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1 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24-431.
- Murphy, B., & Bates, G. W. (1997). Adult attachment style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6), 835-844.
- Nemeroff, R. K. (1999). *Stress, social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late Life: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attachment*.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1997).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daily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409-1423.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Safran, J. D. (1990). *Towards a refinement of cognitive therapy in light of interpersonal theory: II. Practi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1), 87-105.
- Schaubroeck, J., Cotton, J. L., & Jennings, K. R. (198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role stress: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0(1), 35-58.
- Simpson, J. A., Rholes, W. S., Campbell, L., Tran, S., & Wilson, C. L. (2003). Adult attachmen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172-1187.
- Smith, R. E., Smoll, F. L., & Ptacek, J. T. (1990). Selective self-esteem and in group bia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60-370.
- Thoits, P. A. (1985).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I. G. Sarason & B. R. Sarason (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51-72). The Hague: Martinus Nijhof.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57-367.
- Vaux, A., & Harrison, D. (1985). Support network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support satisfaction and perceived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3), 245-265.
- West, M., Rose, M. S., & Sheldon, A. (1993). Anxious attachment as a determinant of adult psychopatholog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1(7), 422-427.

원 고 접 수 일 : 2019. 03.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4. 01.

최종게재결정일 : 2019. 04. 04.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Perceived by Secondary School Teachers on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Chong-chol Park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secondary school teachers.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231 secondary school teachers working at three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Seoul and Gyung-gi area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ain variables, namely adult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nd the thre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ach sub-dimension of adult attachment, namely depend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nd close attachmen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levels. All of the variables except senior support and dependent attachmen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Second, social support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depression. Colleague and family support had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attachment and depression though senior support did not.

Key words : adult attachment, depression, social support